

<2015.11.06.>

金北日報

2015년 11월 06일 금요일
007면 자치시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 금상작인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

김용천씨 '개구쟁이들' 금상...입상작 43점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고창군은 5일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을 잘 표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인 이두홍(서천)씨의 '운곡의여

름'과 하승우(정읍)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림저수지와 운곡람사르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광과 함께 잘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http://gcbr.goc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김성규 기자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사진공모 진안 김용천씨 금상 수상 영예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

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고창군 제공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사진공모전 수상작 선정

김용천씨 '개구쟁이들' 금상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

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은상인 이두홍(서천)씨의 '운곡의여름'과 하승우(정읍)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립저수지와 운곡탐사르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경과 함께 잘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입선은 기념품을 수여받는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http://gcbr.goc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사진공모전 수상작 선정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고창=김준완기자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진안)의 '개구쟁이들' 작품.

고창군 명품 자연생태 사진에 담다

전국 사진공모전, 김용천씨 '개구쟁이들' 금상 수상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씨(진안)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은상인 이두홍씨(서천)의 '운곡의 여름'과 하승우씨(정읍)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림저수지와 운곡람사르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광과 함께 잘 담겨있다

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입선은 기념품을 수여받는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gcbr.goc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익희기자

/syhee5311@hanmail.net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김용천 씨 '개구쟁이들' 금상 · 입상작 43점 선정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은상인 이두홍(서천)씨의 '운곡의여름'과 하승우(정읍)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림저수지와 운곡람사르 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경과 함께 잘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입선은 기념

품을 수여받는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 받아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http://gchr.goc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의 자연생태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응모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훌륭한 사진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진안 김용천 씨 '개구쟁이들' 금상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 은상 2점 · 동상 5점 등 43점 수상작 선정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은상인 이두홍(서천)씨의 '운곡의여름'과 하승우(정읍)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립저수지와 운곡람사르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경과 함께 잘 담겨 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입선은 기념품을 수여받는다.



금상 수상작 김용천 씨의 '개구쟁이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http://gctr.goc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응모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훌륭한 사진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금상작 김용천 씨의 '개구쟁이들'.

천혜의 순수함을 '한눈에'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사진공모전, 김용천 씨 '금상'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 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 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은상인 이두홍 씨의 '운곡의여름'과 하승우 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립저수지와 운곡람사르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광과 함께 잘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입선은 기념품을 수여받는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의 자연생태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응모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훌륭한 사진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금상에 선정된 김용천씨 작 '개구쟁이들'.

김용천씨, 고창생물권보전 전국 사진공모전 '금상'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은상인 이두홍(서천)씨의 '운곡의여름'과 하승우(정읍)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림저수지와 운곡람사르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

운 풍경과 함께 잘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입선은 기념품을 수여받는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http://gdr.goc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김종성 기자 · kjs56730@daum.net



‘천진난만’ 갯벌에 핀 웃음꽃

5월 열린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작품사진)’이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개구쟁이들’은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동심을 잘 담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 제공〉

고창 사진공모전 금상에 '개구쟁이들'



(고창=연합뉴스) 전북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전북 진안) 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으로 선정됐다. 2015.11.5

sung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천씨, 고창생물권보전 전국사진공모전서 금상



전북 고창군 주관으로 개최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전북 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 News1 박제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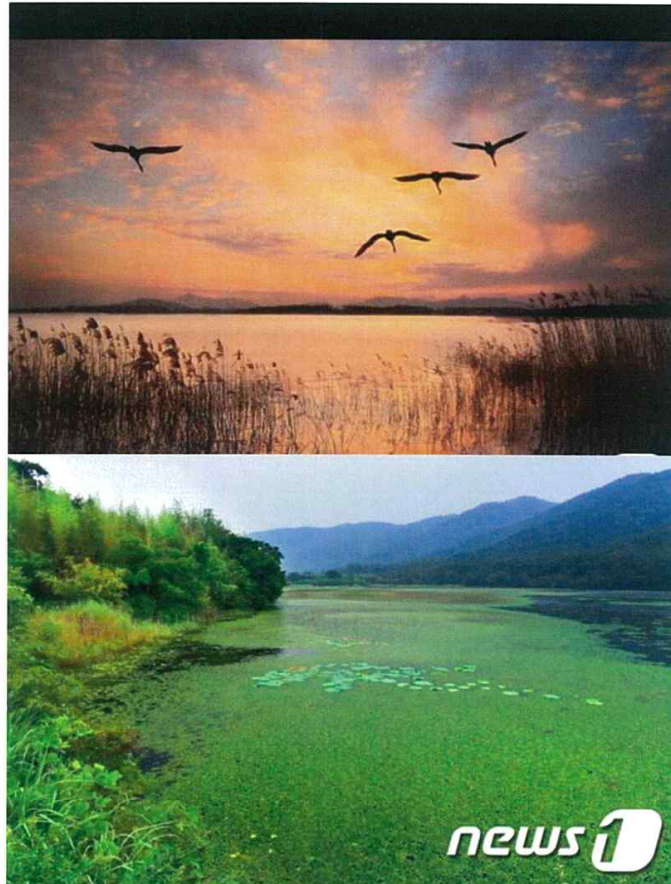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 주관으로 개최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전북 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전북 고창군 주관으로 개최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은상의 수상한 하승우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고창군 주관으로 개최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



서 은상을 수상한 이두홍씨의 '운곡의 여름'. © News1 박제철 기자

은상인 이두홍(서천)씨의 ‘운곡의여름’과 하승우(정읍)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림저수지와 운곡람사르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경과 함께 잘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 (<http://gcbr.goc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의 자연생태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응모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훌륭한 사진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

고창군,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

입상작 43점 선정...고창군 알리는데 활용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은상인 이두홍(서천)씨의 ‘운곡의여름’과 하승우(정읍)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림저수지와 운곡람사르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광과 함께 잘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입선은 기념품을 수여받는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http://gcbr.goc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의 자연생태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응모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훌륭한 사진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 수상작 선정



2015년 고창BR 전국 사진공모전 금상 수상, 김용천 '개구쟁이들'

[전북=동양뉴스통신] 조준수 기자 =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에 선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용천씨의 '개구쟁이들'은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해맑은 개구쟁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동심이 잘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은상인 이두홍(서천)씨의 '운곡의여름'과 하승우(정읍)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또한 동림저수지와 운곡람사르습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광과 함께 잘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입선은 기념품을 수여받는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모전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 (<http://gcbr.goc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의 자연생태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응모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훌륭한 사진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준수 dynewsk1@naver.com

<저작권자 ©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사진공모전 금상 김용천작 '개구쟁이들'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5일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수상작은 사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등 43점이 선정됐다.

김용천(진안)씨의 '개구쟁이들'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은상에 이두홍(서천)씨의 '운곡의 여름'과 하승우(정읍)씨의 '고니, 노을에 물들다' 등이 수상했다.

수상자는 고창군수상과 함께 금상 3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30만원 등의 시상금을 수여받는다. 입선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

2월 중 작품을 책자로 제작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자연생태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응모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훌륭한 사진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 NSP TV.